



“내 삶에서 튀어나온 기본소득, 이제는 정치의 장으로”

문지영 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 대표

인터뷰어

한인정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

편집자주: 75년생 문지영. 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기본소득운동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익숙하다. 그런 그가 지난 8회 지방선거 전남 광역비례의원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주변 반응을 물어보니, ‘그럴 줄 알았다’는 답이 이어진다. 이런 답을 듣는 경우는 크게 두 부류다. 정치인이 되겠다고 여기저기에 말을 하고 다닌 과거가 있거나, 정치인이 될 수 밖에 없는 삶을 살아온 경우다. 우선 그는 ‘나는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말한다. 궁금해졌다.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길래 주변에서 정치인이 될 수 밖에 없는 삶이라고 간주하는 걸까. 그리곤 시작된 인터뷰. 인터뷰가 끝나 갈 때쯤 나도 느꼈다. ‘그래, 이런 사람이 정치해야지. 그럴 줄 알았네’라고 말이다. 혼자 담아두기, 너무 아까운 이야기라 지면을 통해 소개하고 나누고 싶다. 독자 여러분도 한 번 그의 삶 속으로 빠져보셔라. 글은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쓰여 졌으며, 그의 입장에 서서 그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경험에 대해 그의 말투로 풀어내고 있다. 인터뷰 방식의 지면에서 이런 글쓰기를 진행한 점에 대해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수학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한 가장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숫자가 너무 좋았다. 인문계를 가고, 교대를 가고,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했지만, 그저 헛된 ‘바람’이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작은 마을이다. 길잡이도 없을뿐더러, 아버지와 일찍부터 함께 살지 않아 4남매 중 큰 딸로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우선이었다.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하기도 벅찼다. 중학교를 졸업하곤 방직공장에 취직하려 했지만, 선생님의 설득으로 장학금을 받고 실업계에 들어갔다. 19살에는 안산에 있는 제약회사에 취직을 하면서 수도권으로 올라갔다. 또래들이 캠퍼스라이프를 즐길 시간, 데모를 한다며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거리를 걸을 시간, 아침부터 밤까지 주중부터 주말까지, 돌아가는 기계 앞에 서 있었다. 받는 월급은 대부분 집에 부쳤다. 나만 조금 고생하면, 먹고 사는 걱정도 동생들의 학비가 밀릴 일도 없었으니 말이다. 그렇게 나의 20대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24살,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고향에 내려오게 됐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뭐라도 해야 했었다. 그 때 피부관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직원부터, 실장까지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았다. 살아냈다고 보는 게 맞겠다.

노동자노래기획단 ‘바람꽃’이라는 곳에서 활동하던 친구가 어느 날, 몇 시, 어디로 오라는 이야기에 들어간 민중가

요동호회 ‘벗’. 그 곳에서 만난 인연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운명이었던 것 같다. 이후엔 동아리를 통해 인연이 닿아, 평화캠프 목포지부 공세알인연맹기학교 자원활동도 시작했다. 월 2회 발달장애 어린이와 만나는 활동이다. 생각이 깨지기 시작했다. 가난했던 시절을 개인적인 노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만 생각하다가, 이것이 사회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도 배우기 시작했다. 정치의 중요성도 깨달았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누군가의 일일 뿐, 나의 일은 아니었으니.’

그러다, 꽤나 큰 변곡점을 만났다. 40살, 산티아고다. 인생의 여러 질곡들을 무사히 치러냈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쳤으니, 이제 내 삶을 시작해볼까 그런 마음이었다. 우연히 마주친 산티아고 순례길의 사진이 끌렸다. 3년짜리 적금의 만기가 되던 날 하던 일을 모두 멈춰두고 산티아고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산티아고 순례길, 힘들었던 만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제가 사람들에게 산티아고 ‘걷기 전의 지영과 걷고 나서의 지영’이 있다고 해요. 제가 영어, 스페인어 잘 못하니까 순례길을 걷는 동안 주변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보니 말을 안 하게 되고, 혼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엔 스쳐 가는 생각도, 깊어지는 생각도 있었어요. 특히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원망,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 등등을 돌아보고 남아있는 감정을 살펴보게 됐죠.”

나와의 대화가 시작됐다는 건, 내 삶을 반추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다. 특히 자원봉사, 민중가요 동아리 활동 등에서 빈곤, 장애를 공적인 시선으로 돌아보는 훈련이 몸에 배인 터였다. 나와 가족 속에 얽혀있던 온갖 사회문제들의 이면이 보였다. 그제야 얽히고 설킨 감정의 화살들을 우리를 그 자리에 홀로 내버려 둔 국가에 돌릴 수 있게 됐다. 이제 조금씩 서로를, 또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그 뿐 아니다.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앞으로를 바꾸기 위한 용기도 생겼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슈가 무르익을 때였다. 선배가 정당 활동을 제안했다. 생각해본 적 없는 일이라 처음엔 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서울 촛불집회를 다녀오며 마음이 바뀌었다. 사회문제가 내 삶에 그토록 영향을 미쳤다고 여긴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그냥 이렇게 한 걸음 뒤에 서서 바라보기만 해도 괜찮은 걸까. 이 소극적 동조가 불평등, 부패를 강화하는 것은 아닐까. 정치가 내 맘으로 다가왔다. 정치로, 정책으로 내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꿔보겠다는 결심이 짙어졌다. 2017년 2월 말, 하던 일을 모두 접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다.

내가 사는 곳을 바뀌어나가는 정치, 기본소득은 그 기반!

그렇게 정치를 하던 중, 2020년 기본소득당 창당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 사실 기본소득은 맘에 오래 품어온 생각이다. 우연히 봤던 다큐멘터리가 시발점이었다. 북유럽의 복지 이야기로 여러 복지 시리즈를 다뤘다. 그 중에서도 호스피스, 안락사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다.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다. 죽음을 다룬다고? 당장 내 주변도, 그리고 나도 오

늘을 살아내기에 급급한 상태였다. 죽음을 고민하는 건 호사스러운 일이었다. 복지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야기도 낯설었다. 영세민(현재 기초생활수급자)으로 살아왔던 기억, 선별하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낙인, 증명하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의심의 눈초리, 의도적으로 자존감이 짓밟힌 시간이 어제 일 같은데 말이다. 같은 시대, 같은 지구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토록 다를 수 있을까? 도대체 지구 저 건너편에선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조성된 건지 궁금증이 깊어졌다.

“진짜 이상하죠. 어떻게 이토록 다를 수 있냐는 말이에요. 몇십 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최근에 집에 동거인 한 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수급신청부터 장애등록, 바우처 활용까지 다 혼자 신청해야 하는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 내가 혼자였다면 할 수 있었을까. 또 정보를 알려준다고 쳐도, 한국처럼 빈곤이 최악시되는 사회에서 그 굴욕적인 시선을 견뎌가며 제도 안으로 들어올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행복하다고 볼 수 있냐는 거죠.”

여러 정보들을 취합하면서 삶에 필요한 교육, 의료, 주거 등등이 공적으로 제공되고 누구든 최소한의 선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굳어졌다. 그중 가장 와 닿는 지점은, 기본소득이다. 모두의 ‘나다움’을 공적으로 보장하는 기초다. 만약 기본소득이 있다면, 어떤 사회가 펼쳐질까. 과거에 나에게 기본소득이 있었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나와 같은 이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선사하고 싶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찾아 회원가입을 하고, 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를 통해 기본소득 공부에 이어나가고 있다. 그 와중에 방송통신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올해부터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발간하는 뉴스레터의 공동편집위원장을 맡아 기본소득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기도 하다. 기본소득이 뭐냐고 물어보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사람이 먼저지. 돈이 먼저냐.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돈이 사람 위에 군림한 지 오래 됐다고 생각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 물어보는 첫마디가 너 피부관리샵 하면 돈 많이 모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돈이 삶의 질을 담보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아예 돈이 없는 사람들. 아니면 돈이 안 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삶의 질을 담보받지 못하는 거죠. 국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판단기준에 따라 기초가 보장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거죠. 목줄 잡고 흔드는 거잖아요. 그걸 과연 ‘나다운’ 삶의 기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정당활동으로 바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약간 뒤에서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지역에서 자원활동을 하는 것과 정치인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정치인이 되기 위해선 지역의 의제를 끌어내야 했다. 심지어 그렇다

고 하더라도 기성 정치권의 공천을 받기 위해선 의제나 정책보단, 남성-고학력-유지 등의 조건이 필요했다. 주저하는 마음이 꽤나 길게 남았다.

“저는 비혼 여성이며, 빈곤했고, 군 단위 출신에, 실업계를 나왔어요.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집단의 전형성과 거리가 멀죠. 우선 지역 의회에 여성 자체가 적어요. 대부분 50~60대 고학력 남성들이 공천을 받죠. 비례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고학력, 전문직 여성 정도죠. 혹은 지역의 유지 남편이 있거나요. 왜, 지역에서 명문대 갔다고 학교 앞에 현수막을 버젓이 붙여놓는 그런 분들이 금의환향하는 자리죠. 또는 중앙정치로 가려는 디딤돌이 되고요.”

그럼에도 올해 초, 기본소득당에서 전남 광역도의회 비례대표 출마를 권유했을 때는 마음을 먹었다. 아마도 그만큼의 시간이 쌓여서다. 이 지역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지만,

늘 없는 것처럼 여겨진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서다. 나의 이야기였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비혼 여성으로, 빈민으로, 저학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림자 같은 존재들. 대표되지 못하는 목소리.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경험을 하고 있는지 말하고 싶었다. 당선 가능성을 점치기보다, 이 공간에 그런 사람이 최소한 ‘있다’는 것을 말해야 했다. 그래야 변화의 수레바퀴가 굴러갈 동력이 생길 테니.

선거기간, 비례후보 선거운동은 마이크를 사용할 수도 없었다. 연설도 불가능했다. 기본소득당이라는 명함을 돌리며 열심히 인사했다. 선거차량 음악에 맞춰 춤을 추진 않았지만, 진심을 다해 선거운동에 임했다. 나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 정치가 별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썼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난생처음 들어봤다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다. 최종 결과로는 낙선했지만, 실망보다 독려가 되는 시간이었다. 최소 13,755명의 시민들이 나를 믿고 기본소득이라는 미래를 함께 상상한 셈이다. 그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다. 정치가 쉽지는 않지만, 꾸준히 해볼 계획이다.

특히 지역의 각종 공유지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공유부를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정치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가 남는다. 모든 것이 공유지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우선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유부를 찾아내고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방식을 고민할 것이다. 토지세, 신재생에너지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물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는 근본적으로 지소지산(소비하는 곳에서 생산하는) 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 농촌을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화하는 방식은 지양하기 때문이다.

“분명 쉽진 않은 길이라 생각해요. 근데 똑같아요. 제가 18년간 피부관리를 했거든요. 이제는 들어오는 자 세만 봐도 뒷목을 어떻게 풀 것인가, 머리 마사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보여요. (웃음) 저는 제가 전형

적인 정치인은 아닐지 몰라도, 당사자 정치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이렇게도 생각해요. 이 공유지를 구성하는 수많은 공유자에게서 전형성이 있을까요? 오히려 비전형성을 드러내는 정치야말로, 모두를 대표해나가는 과정 아닐까 하는 거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잘’ 나고 ‘못’ 난 사람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각자, 나름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될 때까지 이 길을 걸으려고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요.” (끝)